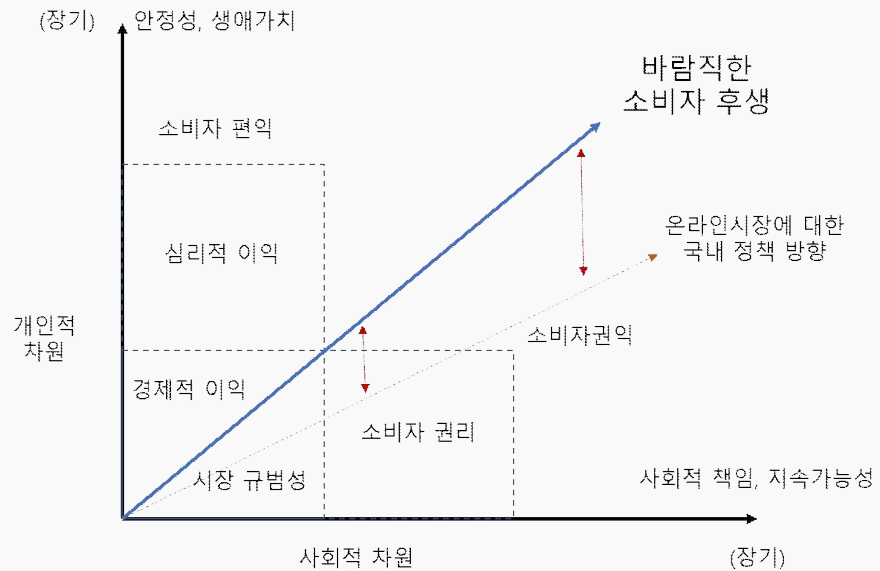


그림 4 | 소비자 후생 개념 및 방향성



* 출처: 김시월 외(2018, p214) 재구성

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이커머스 정책 방향성

-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이커머스의 성장과 변화가 빠르고, 소비자들의 행태 역시 매우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음
 - 전 세계에서 한국은 이커머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, 가격과 품질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, 소비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한 소비자들임
 - 경기침체가 지속되며 알뜰 소비를 추구하는 체리슈머(cherry-sumers)가 등장하였고, 이들의 니즈에 맞춰 이커머스는 공동구매, 조각상품 판매, 가격 구독 서비스 등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음
-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나 시장에 대한 폭 넓은 사실 확인 없이 특정 사건을 계기로 일방적 시각에서 이커머스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어 향후 산업 성장을 방해할 수 있음
 -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비자 후생에 대한 통합적인 고려가 없는 무조건적인 법적 규제는 행정비용 등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상품가격 향상 등 국민 개인의 편익이 낮아질 수 있음
 - 잘못된 가이드 라인이나 규제는 규제 당국의 재량권만 높일 뿐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나 영향력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기업들은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고, 신규 진입의 어려움, 비즈니스 혁신성에 저해를 받으며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
-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과정은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고민을 줄 수 있지만, 시민 개인의 후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다양한 행위자를 포괄하는 방향에서 변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